

## 2018 신년메세지 - 확장 II.

###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진짜 묻고 싶은 질문

#### 1. 세례요한을 향한 질문과 대답

[요한복음 1:19-21]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물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물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던 요한, 그리고 나실인처럼 키워졌던 요한, 광야로 들어가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주님이 오실길을 준비했던 요한! 드디어 요한이 사람들 앞에 등장했다. 마가복음1: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외모부터 사역에 이르기까지 요한은 범상치 않았던 인물임에 틀림없다. 이런 요한을 향하여 세상은 질문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한 질문이지만 그들의 질문은 진지했다.

“요한 너는 누구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다. 오늘 이와같은 질문이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동일하게 던져지고 있다 생각한다. “교회! 너는 누구인가?”,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누구인가?”

사실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다. 원래 질문에서의 ‘질’은 ‘진실, 바탕’을 나타낸다. 어떤 일에 대한 본질과 진실을 물어본다는 뜻이다.

세상은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싶어한다. 너무나 비정상처럼 되어버린 교회, 기독교,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세상은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싶어한다.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은 명쾌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이라는 주어를 사용한다. 분명하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나 자신이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한다.

“세상의 질문? 교회 너희는 회사인가? 아니면 어떤 집단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인가? 너희는 무엇 때문에 모였고,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2. 정체성

요한의 정체성을 향한 세상의 질문은 진지했다. 본질적인 질문이란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며, 바탕이 되는 일이다. 오늘날 세상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쉬지않고 있다.

‘인간! 너희는 누구인가? 인간은 행복한가?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미래는 어떤 인간이 존재하게 될 것인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영적인 질문’이다. 본질이 영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일이다.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많은 일들을 학습했다. 기술과 문명이 발달되고 있지만,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 (기근, 차별, 부조리, 환경, 정치, 경제, 인종, 건강, 전쟁 등) 앞에서 인간은 괴로워 한다.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스스로 만들어낸 인간은 ‘융복합화’된 인간이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할 또 하나의 ‘형상화’된 인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기계와 인간의 결합)

정체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못하면 결국 흔들리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체성, 인간의 정체성을 먼저 보여준다. 인간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분명하다.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철학처럼 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진화론이 말하는 인간의 뿌리에 대한 과학적 검증처럼 모호하지 않다. 성경은 분명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 3. 세례요한의 대답

[요한복음 1:22-23]

22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23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यो."

요한은 그들이 만든 정체성(그리스도,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대답한다. 이런 요한에게 세상은 “그러면 스스로 당신을 무엇이라 생각하시오?” 라는 질문을 한다. 재미있는 것은 요한은 이 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한다.

정체성이란? 세상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정의한 '형상'의 본질이 내가 아니다. '성공의 형상, 능력의 형상, 힘의 형상, 평화의 형상, 겸손, 아름다움의 형상 등' 세상의 형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형상의 틀로 교회를 평가한다. 성공한 교회, 능력있는 교회, 성공한 성도, 능력있는 성도 등 교회도 이 형상에 부합하려 최선을 다한다.

요한은 이런 세상의 틀에 단호히 대응한다. 그리고 분명히 대답한다. 정체성은 남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로 믿고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다. 고아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신 스스로 애를 써도 답을 얻을 수 없다. 아버지를 만나면 해결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정체성은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없다. 아버지를 만나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알게되는 것이다'

“나는 이사야가 말한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을 알았기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이다” 라고 말했다.

### 4. 확장 - 이미지네이션, 인노베이션

#### (1) 이미지네이션 (imagination)

정체성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미지)'에 대한 실재화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이 모든 확장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본질적인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은 본질을 아는 사람들과,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확장을 하기를 원하신다. 내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아성찰적 깨달음을 얻기위한 것도 아니다. 이제 교회와 성도는 추상적으로 모호한 진리에 대해서 나와야 한다.

종교는 하늘을 땅에서 분리시켜 버린다.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의 실존은 없다. 성령, 기도, 예배는 아는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능력은 없다. 경건은 아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다. 영적인 영역과 현실의 강력한 분리와 간극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 즉 이미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미지네이션(imagination)'하지 못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현실이다. 이미지가 '이미지네이션'으로 구체화 되어야 한다. 분명한 청사진, 목표,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체성은 결국 '형상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 **우상(형상)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지 못하는 고아의 영(출애굽 백성)은 결국 광야의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 '우상'을 형상화 해서 절한다. 바벨탑을 세워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사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왕임에도 어린 다윗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시기 질투한다.

### \*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세례요한은 '자기'를 부인했다. 그리고 자신 안에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분명히 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망하고 예수는 흥해야 한다" 라는 고백을 통해, 세례요한의 마음에 새겨진 형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회개하라.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런 세례요한의 사역은 분명하다.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 (2) **인노베이션 (innovation)**

이제 교회는 분명한 정체성 위에 서야한다. 세례요한처럼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의 자격에 대해서 질문한다.

[요한복음 1:25]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세례의 사역을 하는 세례요한의 자격에 대해 질문한다. 자격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늘로부터 온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세상이 주는 자격을 해석할 수 있는 하늘의 자격은 무엇인가? 교회가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늘이 주는 자격을 갖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세례'를 주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 자격은 교회와 성도에게만 주어진 것이다. 교회는 정치집단이 아니다. 교회는 교제하는 사교장소도 아니다. 교회는 자기성찰이 목표가 되는 사찰도 아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하는 곳이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혁신'은 모든 것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위해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이 본질이다. 세상의 자격을 왜 교회가 가지려 하는가? 왜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가? 왜 정당이 되려고 하는가? '교회는 교회'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어려운 자들, 묶인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한다. 이웃을 돌보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 안디옥 교회는 혁신적인 몸이었다.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구습을 벗어야 했다. 유대인의 틀을 벗어야 했다. 확장을 원하는가? 내 틀을 벗어라. 오직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그 사람에게 확장이 일어난다.

본질을 회복하자. 그리고 본질로부터 떠난 모든 것에 혁신이 있어야 한다. 다시 영혼구원하고, 이웃을 돌보고, 선교하여 하나님 나라를 오게하자.